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안철수

여야 후보들, 새해 첫날 '민생 속으로'

이, 부산항·윤, 인천 신항심, 모란공원·안, 수산시장

여야 대선후보들이 지난 1일 새해 동이 트기도 무섭게 민생 현장을 찾아 3월 9일 대선에서의 필승의지를 다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1일 오전 7시 50분 전 세계 10여 개국 교민들과의 '랜선 일출' 행사에서 온라인으로 실시간 새해 덕담을 주고받았다.

이 후보는 부인 김혜경 씨와 함께 서울 한강 노들섬에서 해돋이를 바라보며 '랜선'으로 연결된 교민들에게 신년 소망과 덕담을 전했다.

그는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코로나도 좀 끝났으면 좋겠다"며 "우리나라는 내년이 정말 어려운 한 해였는데 올해는 희망도 많고 행복한 한 해가 되면 좋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오후에는 부산으로 내려가 새해 첫 지방 일정을 시작했다.

이 후보는 새해 첫 지방일정으로 부산항을 택한 데 대해 "부산이 가지는 의미는 각별하다. 대한민국이 저성장을 넘어 지속성장 나라로 가려면 지역 불균형을 극복해야 한다"며 "가덕신공항과 철도기반시설을 통한 트라이포트가 완성되면 부산·울·경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균형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새해 첫날 0시 대의 교역의 최전선인 인천 신항 컨테이너 하역 현장을 찾았다.

윤 후보는 조기와 안전모를 착용하고 항만 근로자들을 격려하며 "우리나라는 경제 대외 의존도가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다. 여러분이 흘리는 땀방울이 한국 경제의 원동력이고,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후 여의도로 이동해 선대위 신년인사 행사에 참석, 선대위 회의를 주재했다.

윤 후보는 최근 지지율 하락세를 의식한 듯 선대위 회의에서 구두를 벗고 큰절을 올리며 "자신을 변화시키는 인간만이 세상의 위대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저부터 바꾸겠다"고 말했다.

최근 지지율 급등세를 보이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서울 동작구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부인 김미경 교수와 '장보기'로 민생 행보를 시작했다.

안 후보는 이어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고, 방명록에 "깨끗한 청와대 초격차 과학기술로 세계 5대 경제 강국 반드시 만들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안 후보는 참배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국민과 시대가 원하는 것은 깨끗한 지도자, 그리고 깨끗한 청와대"라면서 "기득권과 결탁하지 않아야 국민을 위한 개혁을 할 수가 있다"고 밝혔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정치적 동지인 노회찬 전 의원 등이 문헌 경기 남양주 마석 모란공원을 참배하며 새해 첫발을 뗐다.

심 후보는 모란공원에서 연 선대위 신년인사회에서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고 절대 좌절하지 마십시오. 절망과 냉소는 변화를 가로막는 장벽"이라며 "3월 9일 대선과 6월 1일 지방선거가 국민의 대변자를 뽑는 민주주의가 활짝 피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쏟아부어 승리합시다"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부인 김혜경 씨와 함께 서울 한강 노들섬에서 해돋이를 바라보며 '랜선'으로 연결된 교민들에게 신년 소망과 덕담을 전했다.

그는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코로나도 좀 끝났으면 좋겠다"며 "우리나라는 내년이 정말 어려운 한 해였는데 올해는 희망도 많고 행복한 한 해가 되면 좋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오후에는 부산으로 내려가 새해 첫 지방 일정을 시작했다.

이 후보는 새해 첫 지방일정으로 부산항을 택한 데 대해 "부산이 가지는 의미는 각별하다. 대한민국이 저성장을 넘어 지속성장 나라로 가려면 지역 불균형을 극복해야 한다"며 "가덕신공항과 철도기반시설을 통한 트라이포트가 완성되면 부산·울·경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균형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새해 첫날 0시 대의 교역의 최전선인 인천 신항 컨테이너 하역 현장을 찾았다.

윤 후보는 조기와 안전모를 착용하고 항만 근로자들을 격려하며 "우리나라는 경제 대외 의존도가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다. 여러분이 흘리는 땀방울이 한국 경제의 원동력이고,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후 여의도로 이동해 선대위 신년인사 행사에 참석, 선대위 회의를 주재했다.

윤 후보는 최근 지지율 하락세를 의식한 듯 선대위 회의에서 구두를 벗고 큰절을 올리며 "자신을 변화시키는 인간만이 세상의 위대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저부터 바꾸겠다"고 말했다.

최근 지지율 급등세를 보이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서울 동작구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부인 김미경 교수와 '장보기'로 민생 행보를 시작했다.

안 후보는 이어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고, 방명록에 "깨끗한 청와대 초격차 과학기술로 세계 5대 경제 강국 반드시 만들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이 후보는 부인 김혜경 씨와 함께 서울 한강 노들섬에서 해돋이를 바라보며 '랜선'으로 연결된 교민들에게 신년 소망과 덕담을 전했다.

그는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코로나도 좀 끝났으면 좋겠다"며 "우리나라는 내년이 정말 어려운 한 해였는데 올해는 희망도 많고 행복한 한 해가 되면 좋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오후에는 부산으로 내려가 새해 첫 지방 일정을 시작했다.

이 후보는 새해 첫 지방일정으로 부산항을 택한 데 대해 "부산이 가지는 의미는 각별하다. 대한민국이 저성장을 넘어 지속성장 나라로 가려면 지역 불균형을 극복해야 한다"며 "가덕신공항과 철도기반시설을 통한 트라이포트가 완성되면 부산·울·경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균형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새해 첫날 0시 대의 교역의 최전선인 인천 신항 컨테이너 하역 현장을 찾았다.

윤 후보는 조기와 안전모를 착용하고 항만 근로자들을 격려하며 "우리나라는 경제 대외 의존도가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다. 여러분이 흘리는 땀방울이 한국 경제의 원동력이고,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후 여의도로 이동해 선대위 신년인사 행사에 참석, 선대위 회의를 주재했다.

윤 후보는 최근 지지율 하락세를 의식한 듯 선대위 회의에서 구두를 벗고 큰절을 올리며 "자신을 변화시키는 인간만이 세상의 위대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저부터 바꾸겠다"고 말했다.

최근 지지율 급등세를 보이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서울 동작구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부인 김미경 교수와 '장보기'로 민생 행보를 시작했다.

안 후보는 이어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고, 방명록에 "깨끗한 청와대 초격차 과학기술로 세계 5대 경제 강국 반드시 만들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이 후보는 부인 김혜경 씨와 함께 서울 한강 노들섬에서 해돋이를 바라보며 '랜선'으로 연결된 교민들에게 신년 소망과 덕담을 전했다.

그는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코로나도 좀 끝났으면 좋겠다"며 "우리나라는 내년이 정말 어려운 한 해였는데 올해는 희망도 많고 행복한 한 해가 되면 좋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오후에는 부산으로 내려가 새해 첫 지방 일정을 시작했다.

이 후보는 새해 첫 지방일정으로 부산항을 택한 데 대해 "부산이 가지는 의미는 각별하다. 대한민국이 저성장을 넘어 지속성장 나라로 가려면 지역 불균형을 극복해야 한다"며 "가덕신공항과 철도기반시설을 통한 트라이포트가 완성되면 부산·울·경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균형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새해 첫날 0시 대의 교역의 최전선인 인천 신항 컨테이너 하역 현장을 찾았다.

윤 후보는 조기와 안전모를 착용하고 항만 근로자들을 격려하며 "우리나라는 경제 대외 의존도가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다. 여러분이 흘리는 땀방울이 한국 경제의 원동력이고,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후 여의도로 이동해 선대위 신년인사 행사에 참석, 선대위 회의를 주재했다.

윤 후보는 최근 지지율 하락세를 의식한 듯 선대위 회의에서 구두를 벗고 큰절을 올리며 "자신을 변화시키는 인간만이 세상의 위대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저부터 바꾸겠다"고 말했다.

최근 지지율 급등세를 보이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서울 동작구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부인 김미경 교수와 '장보기'로 민생 행보를 시작했다.

안 후보는 이어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고, 방명록에 "깨끗한 청와대 초격차 과학기술로 세계 5대 경제 강국 반드시 만들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정기 브리핑

주철현, '이재명 후보 필승' 결의대회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여수갑지역위원회(위원장 주철현·사진)는 지난 1일 합천 호랑이의 기운을 담아 '이재명 후보 필승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여수갑지역위원회에 따르면 필승 결의 대회는 이날 오후 여수엑스포 컨벤션센터 엑스포홀에서 주철현 지역위원장의 대회사, 이재명 후보와 송영길 당 대표의 새해 영상 인사, 이재명 후보에게 바란다, 결의문 낭독, 구호 제창 등 순서로 진행됐다.

앞서 여수갑 지역위는 공동선대위원장, 공동본부장, 각종위원회·특별위원회 및 실무본부장 등 공모를 통해 모집된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18개 상설위원회, 48개 특별위원회와 20개 실무본부, 분야별



SNS 5개팀, 읍·면·동 조직까지 900여명으로 매머드급 지역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주철현상임선대위원장은 "우리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코로나19 팬데믹, 기후위기,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돌파해낼 강력한 리더십을 갖춘 이재명 후보를 기필코 당선시켜야 한다"며 "여수에서부터 이재명 바람을 일으켜 이재명의 압도적 당선을 주도하자"고 다짐했다.

김희재, 교육격차해소위원회 위원장 임명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대전환 선대위 교육격차해소위원회 위원장으로 김희재 의원(여수 을·사진)이 임명됐다.

교육격차해소위원회는 김 의원과 위계점 전 한국방송통신대 총동문 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아 코로나19로 심화된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의 공정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한 정책 개발과 공약 발굴에 나설 예정이다.

교육격차는 코로나19 이전에도 상당 수준 존재해 왔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등교 수업 제한 등으로 교육격차가 심화됐



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김 의원은 "부의 격차가 교육 격차로, 교육 격차가 다시 부의 격차로 이어지는 양극화의 고리를 끊어 내겠다"며 "이재명 후보를 도와 교육의 공정사다리를 복원하고 대한민국 대전환의 기틀을 쌓아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윤재갑, 서해5도특별경비단 격려 방문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해남·완도·진도·사진)이 지난해 12월 30일 이재명 후보와 함께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이하 서특단)을 격려 방문했다.

서특단은 서해5도(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 인근의 북방한계선(NLL)과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 외국 어선 단속과 우리 어민 안전조업을 위해 지난 2017년 창단됐다.

윤 의원은 이재명 후보와 정박 중인 대형합정 3005함을 방문해 단속장비 등 합정 시설을 시찰하고, 세월 호파에도 해상에서 경계근무 중인 합정 승선원과 워킹 교신을 통해 격려 메시지를 전달했다.

윤 의원은 서특단 대원들에게 "나날이 과격해지는 외국 어선의 불법조업으로부



터 어민과 수산자원, 해양영토를 수호해 줘서 감사하다"며 "여러분이 있어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며 우리의 바다가 지켜지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근무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와 불법조업 단속의 고충과 개선사항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원칙적이고 안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 대선공약에 반영하겠다"며 "어민과 수산자원 보호,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 국회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강병운 기자

문 대통령, 오늘 임기 마지막 신년사

국민통합·선도국가 도약 강조 박근혜 특별사면 언급 추측도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해인 임인년 새해를 맞아 3일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신년사를 발표한다.

문 대통령은 이번 신년사에서 국민통합과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노력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배경이나 향후 남북관계 개선 방안에 대한 구체적 언급도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문 대통령은 휴일인 2일 공식 일정을

잡지 않고서 신년사 내용을 구성하는 데 집중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30일 기자회견을 만나 "신년사의 핵심은 '완전한 위기극복'과 '선도국가 전환의 원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난에 가까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빨리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제질서 재편 과정에서 선도국가로서의 위치를 다져야 한다고 강조하는 데 연설의 초점을 맞추겠다는 뜻이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진영 간 대결을 멈추고 모두 힘을 합치는 '국민통합'을 강조할 전망이다.



일부에서는 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배경을 설명하며 통합의 중요성을 부각할 수 있다는 추측도 나온다. 3월 대선에 대한 언급이 있을지도 관심사다.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는 신년사에 포함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한 임기 내 마지막 카드로 중전선언을 이미 제안한 바 있

고, 이를 포함한 남북관계의 돌파구 마련을 위해서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20여년간의 신년사 발표를 마친 뒤에는 정·재계 인사들과 화상으로 신년인사회를 하며 덕담을 주고받는다.

여기에는 박병석 국회의장,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김부겸 국무총리,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을 비롯,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등 여야 대표가 참석한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소장 등 경제단체장들도 초청된 가운데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도 함께할 것으로 보여 강화된 방역조치 속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충에 대한 언급이 나올지에 관심이 쏠린다.

/연합뉴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주)통일화물은 정성과 책임으로 늘 변함없이 고객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 ▶ 취급차량 : 1t~2t
- ▶ 중양지 및 지방지 신문수송전문
- ▶ 일반이사 및 포장이사 전문

- ▶ 정보지·신문 광고대행
- ▶ 광고전단지 운송·배포
- ▶ 내트럭 프랜즈 가맹점

(주)통일화물
 광주 서구 월드컵4강로 182번길 17
 | 대표전화 | 062) 955-2000, 956-8500 | 팩스 | 062) 956-2001